

보도시점

2026. 8. 7.(금) 13:30

배포

2026. 8. 7.(금)

기후부 장관, 광주 제1하수처리장 찾아 호남권 반도체 산단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점검

- 하수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하루 30만톤 규모 공급체계 구축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부터 약 3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약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30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실제 공급물량과 공급 시기, 요구 수질 등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기업의 용수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및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철강·전자·중화학 등 다양한 산업의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자체 처리해 다시 공정에 사용하는 등 물 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적극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티에스엠시(TSMC)는 정부가 조성한 하수 재이용수 공급체계를 통해 하수 재이용수를 생산공정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산업용수로 공급하거나 공정 내 물 재이용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용수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물 수요처를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수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국가 주도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자원”이라며, “지방정부 및 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하루 30만톤 규모의 하수 재이용수 공급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확보와 영산강 수질개선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문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최홍철 (044-201-7024)



1. 개 요

- 목적 :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예정부지 현장 시찰
- 일시/장소 : '26.8.7.(금) 13:20~14:00, 광주 제1하수처리장
 - ※ 주소 :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일원
- 참석자 : ^{정부}장관, 생활하수과장 등
^{지방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기후환경국장

2.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20	· 광주 제1하수처리장 도착	
13:20~13:25 ('05)	· 이동(→ 전망대)	
13:25~13:40 ('15)	· 현장 브리핑	전남광주시
13:40~13:45 ('05)	· 이동(→ 하수 재이용시설 예정부지)	
13:45~14:00 ('15)	· 하수 재이용시설 예정부지 현장 시찰	전남광주시
14:00~	· 이동(→ 해남 태양광 발전 착공식)	